

부채(負債)의 논리와 증여 혹은 예술의 논리

-전지구적 재앙과 그에 맞서는 흐름

백 용 성 (철학,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1. 들어가며 - 욕망기계.

저는 오늘 우리의 처지, 즉 자본주의 하에서의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주체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아름다운 비극정도로 이해되는 나르시스-에코 신화를 새로이 해석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나르시스(Narcissus)는 원래 혼수상태나 감각마비를 뜻하는 나르코시스(Narcosis)에서 온 말입니다. 마셜 매클루언은 나르시스 신화를 자신의 확장인 것, 즉 강물에 비춰진 이미지-미디어에 의한 자기 감각마비상태라고 해석합니다. 즉 확장되는 것은 일종의 자가 절단이고, 이에 대해 “신경체계는 오직 감각의 차단이나 마비를 통해서만 이 같은 증폭의 강도를 견뎌 낼 수 있다.”고 합니다.¹⁾ 물에 비친 영상미디어는 그에 대한 대응자극을 만들어, 즉 살기위한 자기방어 매커니즘을 만들어 내어 감각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코의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이는 미디어의 사회적 수술과 그에 대한 자기 방어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죠. 하지만 저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에코(eco)는 무엇일까요? 에코는 그리스어인 오이코스(oikos) 즉 집, 거주지, 가계(house, dwelling place, habitation)를 지칭합니다. 저는 이를 영토화되기 이전의 어머니 대지의 모습이 영토화되면서 나타나는 신화적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룬 사회기계의 출현 이전의 대지를 말하죠. 들뢰즈/귀타리는 그것을 유목적 공간, 홈 페이지 않은 미끈한 공간 등으로 칭합니다. 거기에서의 관계들은 리즘적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감각마비라는 나르시코스는 또한 트랜스(몰입, 영접)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 신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샤먼과 대지, 인간 공동체의 분리 불가능한 연결의 해체를 알리는 징후가 아닐까요? 제가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스 역시 하나의 ‘영토화’과정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화되면서 국가, 가부장제, 샤먼의 해체 등이 벌어지겠죠. 실제로 플라톤이 시인추방을 말할 때 그것은 샤먼적 트랜스의 추방을 칭합니다. 시물라크르에 대한 두려움 즉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렇기에 물에 비춰진 영상에의 도취는 스스로 간혀버린 디오니소스적인 것, 분리된 것이죠. 그것은 예술도, 종교도 아닙니다. 분리되면서 에코로서의 대지로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미 에코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태는 이러한 분리, 추방, 배제의 지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사회적)인 이유는 동물과 달리 ‘말’을 할 수 있다는 역능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에코는 그것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목소리를 돌려줄 사건이 나르시스와의 마주침에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사태는 반대로 가죠. 왜냐하면 나르시스는 사랑할 수 없는 형벌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르시스의 사랑은 요즘 말하는 청춘의 개인화된 사랑과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디오니소스적인 사랑, 하지만 더 이상 공명, 메아리(에코)를 갖지 못하는 갇힌 사랑이 되는 것이죠. 즉 샤먼-대지-공동체의 연결이 분리되는 사태인 것이죠. 나르시스는 분리된 샤먼일 수 있고요, 에코는 대지이면서 인간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물에 비춰진 영상은 그 ‘관계’ 자체 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그리스 신화(원제는 ‘변신’)는 대지의 역능의 포획을 묘사하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1) 마셜 매클루언,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p. 99.

에코는 메아리의 형태로라도 우리에게 잔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²⁾그러니 물에 비친 영상이 미디어가 아니라 나르시스 자체가 하나의 영매, 미디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미디어는 오히려, 이렇게 분리된, 그리하여 우리의 역량을 분리하는 반응적 힘들이 아닐까요?

대지는 욕망 자체입니다. 그 욕망은, 스피노자 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우주 실체의 자기 변용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라이프니츠 식으로 말하자면 숨겨진 힘 즉 대문자 Force, 혹은 충동 Impetus 자체일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는 다른 우주의 욕망. 무의식 자체. 그것은 우주 에로스의 철학이겠습니까.³⁾ 사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인간 활동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본질을 ‘생산’이라고 하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끝없이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들뢰즈, 가타리가 말하는 욕망하는 생산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욕망에 등을 돌리거나 이 욕망을 결핍의 욕망으로 만들며 거세하는 오이디푸스의 세계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의무가 먼저인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를 살고 있으며, 거짓욕망을 부추기는 사회를 살고 있어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사실 막연한 관념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욕망을 제대로 느끼려면 일단 시간, 변화를 긍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는 시간의 흐름, 변화와 떼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이요, 변화이겠습니까. 『부채, 그 첫 5000년』을 쓴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서구의 철학의 흐름을 크게 정태적인 철학과 역동적인, 과정의 철학으로 나눴습니다만, 그의 지적은 여러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로서 예를 들어 헤라클레이토스(만물은 변화한다)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역동에 중점을 두는 철학, 아마도 에피쿠로스, 스피노자, 베르그손, 니체, 마르크스, 화이트헤드, 시몽통, 들뢰즈/가타리 정도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정태적인 것, 불변의 것, 영원한 것을 강조하는 쪽은 당연히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플라톤이 그 대가가 되겠죠. 쉽게 정리하자면 시간을 영원한 정지보다 저열하게, 부차적인 것으로 보느냐, 그 반대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정치, 문화, 예술의 변화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사회기능주의나 구조주의적인 입장들은 사회의 상태들을 안정적인 부동의 상태로 표상하길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능이 잘 돌아가느냐, 혹은 잘 돌아가지 않느냐, 정상이나 아노미냐 하며 논쟁을 즐기죠, 나아가 아노미다, 질서가 없다, 예전이 참 좋았다 하며 떠들어 댁니다. 구조주의의 경우는 또한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간의 비례관계들을 따지면서 불변 항을 찾아내고 인류학적인 어떤 동종 구조를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쌍둥이들은 그런데, 왜 한 사회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은 변화를 설명한다고 믿지만 참으로 묘한 변화가 되죠. 그러다가 점차 기계적 연대가 사회의 압력을 받고 경쟁상태로 내몰리면서 분업이 나오고 유기적 연대가 확대되어나간다...- 기계론적인 미소 변이 같은 설명이면서 외적 결정론의 설명들...등등.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의 힘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죠. 욕망입니다. 생산하는 욕망이요, 힘 자체이죠. 이것은 일종의 차이화의 능력입니다. 반복하는 가운데에 이행들을 만들어가는 밑바닥의 힘.

사실 그들은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체 자체가 그런 경향의 사회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들이 자주 출현한다고 볼 수 있죠.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여전히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집착하고 있어서, 거대한 시장 그물망에 있는 합리적 주체와 그물망 자체의 안전성, 평형성만을

2) 살바도르 달리는 그 특유의 초현실주의적 기법으로 나르시스와 에로스를 표현합니다.(<나르시스의 변형>, 1937년) 그렇지만 그 작품은 지나치게 인간적 에로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3) 들뢰즈/가타리는 『안티-오이디푸스』(Anti-Edipe) 초입부터 욕망을 다음과 같이 기계로서 묘사한다. “그것(ça, das Es)은 도처에서 기능한다. 때론 멈춤 없이, 때론 간헐적으로, 그것은 숨쉬고 열 내고, 먹는다. 그것은 똥 싸고 씹는다. 이드(le ça)라고 불러버린 것은 얼마나 큰 오류인가? 도처에서 그것은 기계들인데, 이 말은 결코 은유가 아니다. 나뭇의 연동들, 나뭇의 연결들을 지닌, 기계들의 기계들, 원천-기계에 기관-기계가 접목된다. 한 기계는 흐름을 방출하고, 이를 다른 기계가 절단한다. 젓가슴은 젖을 생산하는 기계이고, 입은 이 기계와 짝짓는(연동된) 기계이다.”(AO 7)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데이비그 그레이버의 『부채, 그 첫 5000년』은 경제학의 논리를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하게 비판한 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사회체이나 베르크손이 말하는 지배적인 닫힌도덕과 이에 대립되는 열린도덕이, 혹은 정태적 종교와 역동적 종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열린도덕, 역동적 종교 자체도 바로 욕망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과정의 철학 옆에 욕망의 철학, 혹은 기쁨의 철학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욕망의 작동 원리

하지만 욕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욕망하는 기계들은 다수적인 폐거리의 사태들, 끝없는 생산들 자체입니다. 어디서나 서로 연결되고 끊어지고, 다시 다른 것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됩니다. 베르크손이라면 그것을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지속이라고 했겠조. 그것은 그래서 일종의 두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모든 욕망은 집합적(collective)인 성격, 폐거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들뢰즈/가타리의 <<양티 외디푸스>>에 따르면 이는 욕망 자체가 욕망하는 기계들로 들끓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분열적 흐름, 연결하고 절단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별자인 개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개인 이전의 상태 즉 전 개체적인 흐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과하는 무수한 흐름들. 그러면서 '나'도 끝없이 변용되는 그러한 흐름들. 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통계학적이고 덩어리가 큰 그램 분자적인 흐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회의 출산율, 경제 성장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욕망이 연결되고, 헤어지고,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 아래의 흐름들, 이것은 진정한 우리사회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자적인 체제, 다른 한편으로는 덩어리진 그램분자적인 체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연결되는 것, 사회가 뇌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들뢰즈/가타리는 욕망기계의 세 가지 종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 ⁴⁾	대립되는 두 방식(본성의 차이들)	특징
연결종합(생산의 생산) connection	전체적 특수적 Vs 부분적, 분자적 분자적 흐름차원.	원천기계-기관기계의 절단과 흐름들...채취-절단의 흐름 ⁵⁾
이접종합(등록의 생산) disjonction	배타적 선언/선택 VS 포합적 이접/선택 기관 없는 신체 차원-자기생산, 자신에 의한 자신의 발생.	이탈-절단.(억압과 압박(repression) 기적기계 분열증과 편집증의 분화. 편집증은 욕망기계에 대한 기관 없는 신체의 밀쳐냄 잔여-절단. 독신기계.
결합종합(소비의 생산) conjonction	분리 차별적 결합 vs 혁명적인 무의식 공급 (주체의 영역, 나는 느낀다)	결합 종합의 분리차별적 사용과 유목적 사용 인종차별주의, 우월주의... vs 유목적 다의적 사용.

4) 논리학에서 세 가지 종합. 연접, 이접, 통접 혹은 연연, 선언, 합연 (connection, disjonction, conjunction),

a) "나는 먹고 마신다" 두 명제를 연결하는 접속사, 즉 연접(연연, conjunction) b) "나는 먹거나 또는 마신다." 상호 배제적이지 아닌 명제를 선언 명제라 한다. c) 통접은 한 계열과 다른 계열의 지배관계

연접은 엄마의 유방과 아이의 입, 찰리의 깃발과 시위대처럼 이항적으로 종합되는 것으로, 접속(接續)의 접속사는 '와'(...et. 다. 이접(離接)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지 '이것이든 저것이든'(soit...soit...) 형식의 종합인데, 예를 들어 찰리의 깃발은 경계(警戒)표시도 되고 공산주의자의 적기도 된다. 이 중 어느 하나로 배제적으로 고정하려는 것을 배제적(exclusive) 이접(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다에 대해 열어두는 것을 포합적(inclusive) 이접(이것이든 저것이든)이라고 한다. 통접(統接)은 두 계열(séries)의 접속이 어느 하나의 우위 아래 귀착점에 이르는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트럭-깃발-찰리의 계열은 시위대-깃발-찰리의 계열과 접속되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그 깃발에 대해 '적기'라고 판단하고, '그리하여'(c'est donc) 찰리는 '공산주의자'가 된다. 시위대 계열의 우위 아래 이루어진 통접, 그 결과로서 주체.

5) "기계는 흐름을 생산한다고 상정된 다른 기계에 연결하는 한에서만 흐름의 절단을 생산한다. 그리고 물론 이 다른 기계도

그러니 도처에 욕망의 두 가지 방향이 문제가 됩니다. 예측적이나, 자율적이나!

3. 부채 장치와 사회기계들 - 영토기계, 군주기계, 자본주의기계

먼저 사회기계 혹은 사회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 기계라는 것은 머퍼드가 말하는 거대기계라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기술과 문명』). 사실 그것은 기술기계와 달리 고장 나면서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기계에서 다른 사회기계로의 이행은 순전히 우연적, 우발적 마주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필연적인 방식으로 연쇄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회기계는 마르크스의 생산력-생산양식을 보편화하면서 인류사회에 적용한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은 이러한 사회기계의 자장(磁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간단한 도표로 사회기계의 특징을 살펴보죠.

구분	기본 정의	특징
원시 영토 기계와 코드화	최초의 사회체=토지. 여신 대지의 충만한 몸 위에 재배가능한 종들, 농업도구들, 인간 도구들이 모인다. 잔혹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	혈연과 결연의 조직화가 관건. 욕망의 코드화, 욕망의 흐름들의 코드화. 부채의 탄생-원시 경제. 잔혹극 ⁶⁾
야만 전제군 주기계와 초코드화	영토기계대신에 국가라는 거대기계, 전제군주의 몸체가 등장. 영토기계는 사라진 게 아니라 부품화. 탈영토화작동. 초코드화=법의 본질. 새로운 기입의 방식. 공포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	전제주의의 지평에는 언제나 일신교가 존재. 부채는 실존의 부채, 신민들 자신의 실존의 부채가 된다. ⁷⁾
문명 자본주 의기계와 탈영토화	탈영토화, 탈코드화, 공리계. 이상한 독실함을 수반하는 냉소에 의한 생산.	채권-채무관계의 미시화, 보편화

특히 자본주의 기계는 독특하고 철저한 매트릭스의 세계를 만드는 데요, 모든 무의식적 분열-욕망을 개인으로, 가족으로 좁히고 가두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나름 절단이다. 하지만 무한한 연속된 흐름을 관념적으로 생산하는 제3의 기계와 관련해서만, 이 다른 기계는 절단이다. ...요컨대, 모든 기계는 자신이 연결되는 기계와 관련해서는 흐름의 절단이지만, 자신에 연결되는 기계와 관련해서는 흐름자체 또는 흐름의 생산이다...도처에 욕망이 샘솟는 흐름-절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욕망의 생산성이요, 생산물에 생산하기를 접붙이는 일을 한다.(AO 44)" 또한 이러한 흐름은 파편화된 부분대상들과 연관된다. 이것이 무의식의 분자적 요소로서의 부분대상이다.

- 6) 니체의 부채방정식...『도덕의 계보학』, "인간은 강렬한 배아 내류를, 즉 집단의 모든 시도를 휩쓸어갈 거대한 생물적-우주적 기억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억을, 즉 집단 기억을 가지게 할 것인가? 즉, 말들과 결연들의 기억, 확장 혈연들로 결연들을 직조하는 기억,...그리하여 욕망의 흐름들과 코드화를 사회의 조건으로서 조작하는 기억을 말이다. 그 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부채이다.(AO, 225)"

"니체는 묻는다. 죄인의 고통이 그가 야기한 손해의 "등가물"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어떻게 괴로움으로 "값을"수가 있는가? 괴로움에서 쾌락을 뽑아내는 눈을 끌어대야 한다(이것은 복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 눈은 니체 자신이 평가하는 눈이라 부른 것, 즉 잔혹한 광경들을 즐기는 신들의 눈이다. "별에도 또한 그토록 많은 축제다운 것이 있다!"...그만큼 큰 고통도 능동적 삶과 향유하는 시선의 일부가 된다. (AO 226)-평가하는 눈.

- 7) "복수는 전제군주에 맞선 신민들의 복수가 된다. ..복수와 원한, 그것은 물론 정의의 시작이 아니라, 니체가 분석하듯이 제국구성체 안에서의 정의의 생성과 그 운명이다."(AO 254)

영토성의 허상으로서의 어머니, 전제군주 법의 허상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절단되고 쪼개지고 거세된 나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자본주의의 부드러운 중심부에는, 즉 온화한 부르주아 지역들에서는, 식민지는 내밀하고 사적인 것이 되며, 각자의 내부에 있게 된다.가족은 모든 사회적 규정들의 보유와 공진(共振)의 장소가 되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단지 아버지-어머니만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회적 이미지들을 제한된 가족의 허상들에 적용하는 일은, 자본주의 장의 반동적 투자에 속한다. 우리 피부에 엉겨 붙은 저 오이디부프적 부패여. 그렇다. 나는 내 어머니를 욕망했고 내 아버지를 죽이기를 바랐다.(AO 321)

이렇게 인간의 자연인 욕망, 무의식의 힘은 ‘더러운 작은 비밀’로 환원되는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기계의 절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 밖에 존재합니다. “충만한 몸으로서의 사회체는 돈-자본인 한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되었다. 이 사회체는 다른 어떤 전제도 용납하지 않는다. 기입되거나 표시되는 것은 더 이상 생산자들이나 비-생산자들이 아니라, 관계 맺음 내지 결합 속에서 실효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되는 추상량으로서의 생산력과 생산수단이다. 즉 노동력 내지 자본, 불변자본 내지 가변자본, 혈연자본 내지 결연 자본 등. 결연과 혈연의 관계들을 자기에게 탈취해 온 것은 바로 자본이다. 이로부터 가족의 사유화가 뒤따르는데, 이 사유화에 따라 가족은 자신의 사회적 형식을 경제적 재생산에 주기를 멈춘다. 가족은 투자 철회된 것과도 같아서, 장(場) 바깥에 놓인다.(AO 313-4)”

이것은 실제 토지 더 오래전에는 대지를 공유하며 살았던 혈연, 결연의 사회성, 그 속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모든 것이 가로질렀던 사회적 ‘장’은 닫히며, 일종의 창 없는 모나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이디푸스는 사회적 주권의 형식에 응답하는 우리의 내밀한 식민주구성체이다. 우리는 모두 작은 식민지이며, 바로 오이디푸스가 우리를 식민화한다.” 이것은 드넓은 광야를 달리던 위대한 유목의 초원을 아버지-어머니-나라는 가족 삼각형으로 축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부채⁸⁾사회- 양심적 가책의 주체화와 예속화과정.

그렇다면 정태적 경향, 오이디푸스는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편집증적 욕망과 관련될 것입니다. 왜 본래적 욕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데 사회체는 우리를 고통과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죽음까지 쫓아오려고 하는가? 그것은 니체에 의하면 분리하는 반응적 힘들-기계들 입이다. 즉 끝까지 뺏어나가려는 욕망의 벡터를 잡아떼고, 분리하고, 자신에 종속시키고자하는 반동의 힘이지요. 하지만 이 힘도 하나의 욕망의 결과요,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 됩니다. 아만적 별종이라 할만한, 정신분석학자인 라이히는 ‘대중은 파시즘을 욕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대중은 박정희를 욕망했습니다. 진정한 전제군주, 진정한 아버지를 욕망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회체의 사회기계들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억압하고 핍박하는 기계 말입니다. 그것은 사회제도, 여러 법적, 행정적, 치안적 장치들을 배치하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욕망하는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억압과 핍박을 숨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모두가 모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로가 노예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한한 부채를 순환시켜 각자들에게 떠맡기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채권자를 빼고는 모두가 채무자요, 노예인 것입니다. 사실 채권자도 돈의 노예이지요. 들뢰즈/가타리는 니체를 따라(특히, <<도덕의 계보학>>) 자본주의에

8) 부채는 독일어에서 숄트Schuld로서 빚이면서 동시에 죄를 뜻한다.

있어서 채권-채무의 무한한 관계를 분석합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를 지배했던 토지기계, 전제군주기계에도 채권-채무의 기술이 적용되지만, 토지기계에서는 기껏해야 한정적인 채무들이었으며, 전제군주기계 때에는 그것이 무한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영토화와 탈코드화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사태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우리쥬오 라짜라토가 『부채인간』에서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 이후, 2007년 금융 사태이후는 특히나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모든 자본주의 통치술, 지배술의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채무를 만들어 내는, 끝없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 그러나 그것은 이제 **채양**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일반인이 버는 돈은 구매력에 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기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일반인의 돈과는 차원이 다른 돈이 됩니다. 국가가 은행을 보증하면서 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무한부채가 시작되는 거죠.

더 이상 주인조차 없으며, 지금은 다만 다른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노예들만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밖에서 동물에게 짐을 자율 필요가 없으며, 동물 스스로 짐을 진다. 인간은 결코 기술기계의 노예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 기계의 노예이다. 부르주아가 그 사례이다. 부르주아 전체를 놓고 보면, 부르주아는 자기의 향유와 아무 관련도 없는 목적들을 위해 잉여가치를 흡수한다. 부르주아는 가장 천한 노예보다 더 천한 노예요, 굶주린 기계의 우두머리 종ियो, 자본을 재생산하는 짐승이요, 무한 부채의 내면화이다. “나는 종이다”라는 것이 주인의 새로운 말이다.(AO 302)

푸코가 지적한 규율사회 즉 감시와 처벌의 사회는 지나가고 이제 무시무시한 예측화와 자동 기계화하는 통제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채사회라 할 만한 채권-채무의 기술을 가지고 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분석의 대가입니다. 먼저 그는 채권-채무의 비대칭적 관계로부터 양심의 가책이라는 내면화, 주체화, 예측화의 과정을 분석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무엇일까요?

양심은 책임에 대한 기억이고, 기억은 사육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육은 고통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하는 것이죠. 고통에 대한 기억은 고통을 피하게 하도록 하며, 이것이 사육과정을 통해 기억은 인간 의지의 이성이 됩니다. 이성은 고통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금지시킨 고정관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로 니체는 거세나 희생제물 등의 잔인한 종교 의례, 잔인한 형벌제도, 그리고 여러 금욕적 의례들을 듭니다. 무시한 신체에의 각인들. 잔인함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망각에 대한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니체에게서 망각이라는 하나의 능력 즉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그것을 가로 막는 것이죠.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저 변화의 압력 때문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심각한 병이라고 간주한다. 저 변화란 인간이 결국 사회와 평화의 구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변화를 말한다. [...] 오래된 자유의 본능에 대해 국가조직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저 무서운 방어벽은 -특히 형벌도 이러한 방어벽에 속한다- 거칠고 자유롭게 방황하는 인간의 저 본능을 모두 거꾸로 돌려 인간 자신으로 향하게 하는 일을 해냈다. 적의, 잔인함과 박해, 습격이나 변혁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 -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다. 길들여지고자 하는 인간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발명한다.⁹⁾

이러한 가책은 미래로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우리의 현재를 빈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늘 자나간 과거와 오고 있는 미래의 종합인데, 자꾸만 미래가 이자지급일, 만기일의 형식으로 현재를 옥죄기 때문이죠. 우리는 초조하고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부채는 시간 자체, 곧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로서의 시간, 다시 말해

9) 니체, 『도덕의 계보』 (GM II 16: KGW VI 2, 337-339. 한글판 pp.431-432.)

모든 정치적·사회적 혹은 미학적 변화의 초기조건인 시간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부채는 당연히 채권자를 상정하죠. 현대에 있어서 무한한 부채를 생산해내는 채권자는 ‘자본’ 그것도 금융자본입니다. 모든 것의 논리를 $G \rightarrow G'$ 의 형식으로 묶고 강제하는 단순하지만 잔인한 논리입니다. 돈은 돈을 낳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들여 봐도 모든 게 이러한 논리로 포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융자본주의, 생명자본주의기계의 참 모습입니다. 크리스티안 마라찌는 『금융자본주의의 폭력』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합니다. 이제 산업자본주의 혹은 포드주의는 끝났고, 자본은 더 이상 생산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즉 생산에 투자하면서 산노동을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로지 이윤자체의 발생에 주목하는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는 생산이 생산 밖의 영역까지 외부화해서 포획하는 금융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생산과정의 외부화는 심지어 대중과 그 삶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 즉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¹¹⁾ 이들 크라우드 소싱 기술은 알렉산더 겔러웨이가 “프로토콜 통제”라고 부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본의 새로운 유기적 구성, 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변자본은(언어적 기계의 총체로서) 사회에 분산되어 있으며, 가변자본은 (사고, 감정, 욕망, 성적 능력을 비롯한 ‘자유노동’의 총체로서)재 생산, 소비, 생활방식, 개인과 집단의 상상력 같은 영역에 흩어져 있다.”¹²⁾

이제 금융은 단지 기업에 대한 대출 즉 생산영역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유통, 소비까지 퍼져, 별거벗은 삶 자체에서 작동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핸드폰을 구매할 때 이제 금융, 캐피탈은 필수가 된 거죠. 학자금대출, 핸드폰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노동의 착취만이 문제가 아니라 휴식, 이동, 소비 등 광범위한 인간 활동을 채권-채무의 그물로 엮는 것이죠. 이윤의 지대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의 코뮤니즘이 실현됩니다. 거기에서가 치밀하게(?) 신용등급을 매기면서 매순간 우리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국가가 아닙니다. 신용평가기관도 국가가 아니죠. IMF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무시한 불한당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행해왔던 여러 일방적 행위들은 ‘부채, 그 첫 5000년’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느헤미야」는 어떻게 빚을 지게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채권자가 노예로 가져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유대교에 있는 희년제도라는 것도 얼마나 부채가 사회를 망가뜨렸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것은 그 어떤 구제가능성도 없는 시스템 속에서 진행됩니다. 라짜라토는 부채의 존재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행동능력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며(케르케고르는) “가능성이 없다면, 나는 질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고 있는 열린 시간, 다시 말해 선택의 가능성, 실존의 위험 및 가능한 분기점들을 포함하는 ‘현재’를 내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가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예견불가능한 분기점 들 및 가능성들이다.”¹³⁾

재밌는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 이제 호모에코노미쿠스의 논리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를 분석하는 그의 콜레주드 프랑스 강의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안전, 영토, 인구』) 그것은 이제 예전의 이기적이고 합리적 형식을 벗어나, 자기경영자의 관념을 발명합니다. Faire de soi-même une entreprise. 이제 게임의 룰이 변합니다. 양심의 가책, 자학, 원한의 심리적 내면화와 더불어 이제 각자는 각자의 경영자로서 자신을 경영해야 한다는 관념이 득세합니다.(스케줄관리, 자기개발서들, 합리성의 규칙들... 정말로 미친 합리성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을 전체화하는 동시에 개별화시키는 놀라운 발명기술입니다.

10) 마우리쥬오 라짜라토, 『부채인간』, p.79.

11) 크리스티안 마라찌,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p.66.

12) 위 책, p.73-74.

13) 위 책, p.106.

당신은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공부든, 회사생활이든, 취직준비든! 대학 떨어졌나? 회사에서 쫓렸나? 취직이 안 되나? - 그럼 다 니 잘못이다! 관리를 잘 했어야지. 왜 그래 프로답지 못하게... 바바라 애런라이크의 저서 『노동의 배신』, 『공정의 배신』은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의 배신』은 최저임금생활자들이 겪는 예속화의 과정들-면접에서부터 그들은 소변검사를 받아야 하고, 쓸데없는 설문지를 오리엔테이션에 써야 하는 등의 절차들...-을 고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청소노동자)의 경우는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순응적이며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설도 보여주고 있다. 『공정의 배신』은 이러한 자기공정의 사이비 논리를 파헤친다.) 이러한 주체화이자 예속화의 과정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총체적 개별화는 각 개인들을 스트레스, 우울, 냉소주의, 자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하나의 반향이겠지요. 여기에 한 술만 더 떠서 말하자면, 인간은 예속화되는 것만 아니라 자동 기계화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들은 기술기계와 접합되어 행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ATM 입금, 출금, 인터넷뱅킹, 지하철, 그 외 순 쉬운 기계적 절차들(은행에서 번호표받기)....이 것들은 미시정치들의 영역이자 예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각방식, 감성방식, 경험방식을 이처럼 변화시키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주시해야하며,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고, 절단할 수 있는가, 새로운 탈-예속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5. 부채사회와 선물사회(증여하는 덕).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의 모험과 과감한 의지 등으로 이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혁신은 오로지 $G \rightarrow G'$ 이 되는 한에서 지지되며, 모든 논리의 논리는 금융의 논리로 귀착됩니다. 라짜라토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금융자본은 정치와 분리된 경제, 문화와 분리된 경제영역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주의자들의 오류, 일부 정치철학자들의 오류(랑시에르 등)는 경제와 분리된 고유의 정치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나아가 인지자본주의도 금융자본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인지 자본은 그저 금융논리의 득이 되는 한에서의 하나의 자본을 뿐입니다. 이제 정치는 경제화된 정치로 변형됩니다. IMF와 신용 평가 회사들이 그리스라는 한 나라를 어떻게 파산에 이르게 하고 주물렀는지 본다면 이를 잘 확인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금융자본, 즉 경제가 지배합니다. 과학 기술과 예술도 경제가 지배합니다. 그것은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반생산(anti-production), 즉 '지나침 속의 결핍의 생산'이기도 합니다. 2007년 금융위기는 분명 금융자본의 위기였지만 국가는 오직 그들에게 희년을 선사합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그들을 원상복귀하면서 국가부채를 기꺼이 떠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지요. 아이들은 국가부채라고 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복지예산들도 점점 금융의 논리로 변합니다. 복지기관들은 적자가 되고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복지를 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권리의 행사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늘어나게 한다는 가책을 받게 합니다. 국가발행 채권은 그러므로 장사가 되는 금융 사업이죠. 문화와 예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거기에서도 금융의 논리가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경영의 논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위계화의 단계를 측정하며, 더 올라가야한다는 강박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과정에서 우리는 끝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들뢰즈/가타리의 얘기를 들어보죠.

과정으로서의 분열증은 욕망적 생산이지만, 그것은 끝에 가서, 자본주의의 조건들 속에서 규정된 사회적 생산의 극한으로서 그러하다. 분열증은 우리, 현대인의 “병”이다. 역사의 끝은 다른 의미가 아니다. 역사의 끝에서는 과정의 두 방향이

합쳐진다. 즉 자신의 탈영토화의 끝까지 가는 사회적 생산의 운동과 새 대지에 욕망을 나르고 거기서 욕망을 재생산하는 형이상학적 생산의 운동이라는 두 방향이 역사의 끝에서 합쳐지는 것이다.(AO 155)

바로 자본주의가 역사의 끝에 있는 것이다. 바로 자본주의가 우발들과 우연들의 오랜 역사에서 귀결되는 것이며, 역사의 끝을 도래하게 하는 것이다.(AO 180)

니체는 채권-채무의 논리, 양심의 가책과 원한의 인간을 천민적, 노예적 가치평가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망각-고통-기억-관습의 도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 주권적 개인(Das souveraine Individuum)을 제시합니다. 주권적 개인은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 즉 간단히 말해 약속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오래된 의지를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관습적인 도덕을 박살 낼 수 있는 '광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세워야 할 에토스(ethos), 새로운 신은 무엇일까요? 베르크손은 『종교와 도덕의 두 원천』에서 열린도덕, 역동적 종교를 언급하면서 강제에 의한 규율이 아닌 교감, 교화에 의해 전개되는 신비주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주의의 힘은 창조적인 감정, 지성이상의 감정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창조적인 감정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들뢰즈/가타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면서 『앙띠 외디푸스』에서 주체집단이라는 개념을 내놓습니다.(나중에는 노마디즘, 전쟁기계로 변형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회기계에 예속되는 예측집단과 대비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혹은 외디푸스화하는 정신분석에 반하는 분열분석의 행위이기도 하지요. 즉 분자적 흐름에 덩어리진 그램 분자적 사회기계의 흐름을 종속시키는 행위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러한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예측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의 '실험', '발명'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의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앞에서 일부로 누락시킨 기초적인 커뮤니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류학자의 업적들인데요, 모스가 그의 대작 『증여론』에서 밝혔고,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원시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초적인 관습(좋은 관습?)들입니다. 이것은 푸코가 말한 대로 '이해 없는 이해관계'의 집합이고, 흔히들 말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동정, 기본적인 공동체 감정 등의 사회적 유대를 칭합니다. 발터벤야민은 이를 경험의 영역으로 놓고, 현대는 경험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순수수단'이라고 했지요, 즉 방긋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관계, 그것은 이해관계, 목적이 없는 함께 함의 확인,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예술계에서 언급되는 '커뮤니티'라는 것도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선물이 됩니다. 그레이버는 원시사회에서 대부분이 사회생활이 이러한 증여 의무 관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배가고프면 그거 맛있어 보인다고 하며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은 그것을 배고픈 자에게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다면 '초과 속에서 심화되는 결핍'인 반생산은 사라지겠죠. 장 보드리야르가 말했듯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환관계, 등가관계에 기초한 상업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업이나, 피라미드 업을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업화에 대한 저항감 때문이지 아닌 가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이러한 '사회'가 정치와 경제라는 이질성을 연결해주는 근대통치술의 상관 향으로써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대성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곧바로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성', '광기', '민족'이 근대의 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물이라고 합니다. 푸코의 말이 틀리지 않다면, 시민사회는 자신의 본래적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만큼이나 상상된 공동체인 것이죠, 혹은 이상화된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수수단, 이해 없는 이해관계는 더 넓거나 작은 범위에서 정도의 차를 가지고 인간생활에 순환되면서

재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냉소주의로 말미암아 상당히 축소되고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시, 부채기계의 분쇄, 분자적 흐름들의 조성, 유목적 공간의 창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커뮤니티 즉 공동체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도래하는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부족의 형성, 새로운 미시-체제의 형성, 자율적 공간의 조성과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푸코가 말한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것’과는 다른 사회적인 것 즉 우리들의 미래가 더 이상 저당 잡히지 않는 어떤 다른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 뇌적인 것,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채사회를 넘어서는 것은 모든, 전체주의, 배타주의와 분리차별의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키는 것, 미시 증여 사회들의 증폭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느끼기, 다르게 살아가기의 교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상호적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창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미학’이 있다면 이러한 미시 흐름들의 접속과 새로운 생성들 자체에 기반하고, 이를 추동력으로 하여 그램 분자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이미 주어진 개인들 간의 만남, 초대, 파티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들뢰즈가 말하듯, 욕망은 교환을 모르고, 오직 증여나 도둑질만을 갖습니다. 예술은 정확히 이러한 증여의 과정자체이인 것이죠. 먼저 창작의 국면에서 그것은 작가자신의 행복, 열락으로 다가오는 선물이요, 소비의 국면(관객)에서, 그것은 이미 주어진 욕구의 만족(상품소비)과는 완전히 다른 예측 불가능한 욕구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기묘한 만족을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적어도 그것을 느끼는 한 우리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미시-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주체는 와해되며 고유한 리듬에 따라 서로가 연결되는 어떤 더 큰 리토로넬르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리즘적인 연결은 사면적인 외침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고립된 개인 주체로서의 향유가 아니라(혼자일 때조차도 얼마나 많은 집합적인 쾌감이 내면에 울리는가), 집합적인 향유로서의 예술은 현대예술의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 순수 개인의 ‘관조’로서의 예술은 과거에 속합니다. 예술을 통해, 예술 안에서 촉발된 상호관계, 창조되는 공동체, 따라서 직접적으로 정치적이며, 철학적이고, 감각적인 것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합적인 생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협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집합적인 방식으로 작가 개인의 창작은 촉발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양태의 집합이냐가 문제이겠지요. 현존하고 작동중인 덩어리 기계에 종속되는 집단적 작업이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 오고 있는 분자적 흐름들의 집합으로 나아가는 작업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랭보처럼 나는 영원히 열등한 종족이요...나는 짐승이요 검둥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아직 사회적 예술의 그 구체적인 형태들과 방식들을 정의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시들이 예술사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정의내리기보다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새로운 꿈을, 착란을, 각자에게 각자의 성을, 각자의 특이한 예술을! 동일화에 용접되지 않는 기쁨의 증폭을!